

'10년 3월 섬유류 수출입 동향(확정치)

□ 2010년 3월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23.2% 증가한 11.3억불, 수입은 전년대비 31.0% 증가한 7.4억불, 무역수지 3.9억불 흑자 기록

○ [수 출] '09년 11월말부터 시작된 수출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3월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함.

* 증가율(%) : ('09.11)6.1→ ('09.12)20.2→('10.1)31.0→('10.2)16.1→('10.3)23.2

- 3월 수출은 미국,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의류 수출국으로의 원부자재(사, 직물류)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1.3억불을 기록하였음

- (품 목) 섬유원료, 사, 직물, 제품의 모든 품목군에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직물, 제품에 비해 특히 원료(58.7%), 사(30.8%) 등 원자재품목의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남. 주요 수출품목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편직물이 20.8%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인조장섬유사(35.7%), 기타 직물(25.2%), 인조장섬유직물(19.4%), 의류(18.6%)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함

- (국 가) 전반적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지속적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(14.9%), 베트남(15.4%), 미국(10.0%), 인도네시아(18.4%), 일본(18.4%), 홍콩(31.2%), UAE(13.7%)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증가세가 아닌 전 지역으로의 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음

○ [수 입]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한 의류품목의 수입 증가와 두자리수 수출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급증으로 전체 수입은 금액 기준 31.0% 증가한 7.4억불을 기록함. 이는 내수회복과 함께 전년동월('09. 3월)의 급격한 수입급락(△25.8%)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함

- (품 목) 주요 수입품목인 의류(6.6%), 기타섬유제품(34.5%), 면사(68.3%), 인조섬유장섬유사(126.6%)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음

- (국 가) 주요 수입국가인 중국(14.9%), 베트남(45.0%), 인도네시아(61.4%), 인도(107.4%), 일본(36.1%) 등 대부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.

- 물량기준으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.6% 증가한 23.3만톤을 기록했으며,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1.3% 증가한 12.9만톤을 기록

*수출단가(\$/kg) : 4.48('09.3)→4.66(6)→4.78(9)→5.00(12)→4.83('10.1)→4.75(2)→4.86(3)

*수입단가(\$/kg) : 5.79('09.3)→4.91(6)→6.16(9)→5.42(12)→5.83('10.1)→5.90(2)→5.78(3)

< 2010년 3월 수출입 실적 >

(백만불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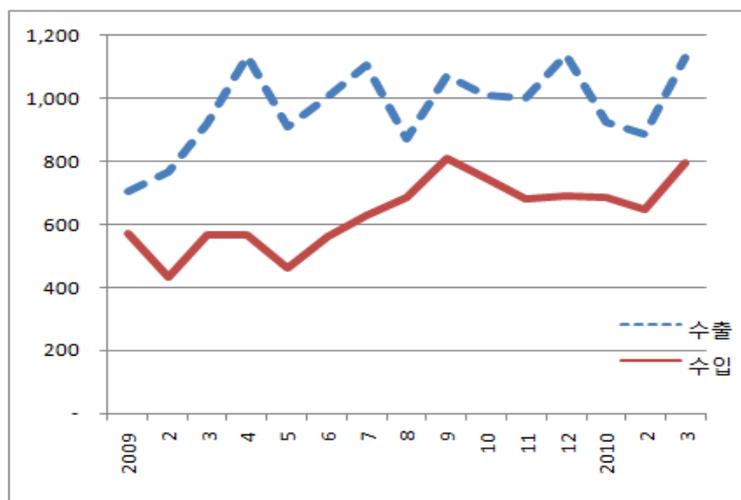
구분	전체		섬유류	
	2009	2010. 3	2009	2010. 3
수출	363,533 (△13.9)	37,450 (34.3)	11,634 (△12.6)	1,131 (23.2)
수입	323,085 (△25.8)	35,632 (49.0)	7,407 (△15.8)	743 (31.0)
수지	40,449	1,817	4,227	388

< '09~'10년 월별 섬유류 수출입 실적 >

(백만불, %)

구분	'09. 1	2	3	4	5	6	7	8	9	10	11	12
수출	705 △31.0	765 △17.5	918 △20.9	1,132 △10.2	911 △26.4	1,004 △11.9	1,105 △15.8	873 △18.9	1,071 △1.9	1,011 △15.6	1,000 6.1	1,138 20.2
수입	571 △31.7	434 △28.7	568 △25.8	567 △31.8	464 △31.9	561 △12.6	628 △21.6	684 △18.2	810 △7.8	747 △5.7	638 17.9	690 25.9

구분	'10. 1	2	3
수출	923 31.9	881 15.1	1,131 23.2
수입	686 20.2	649 49.6	743 31.0



※ 붙임 : 3월 섬유류 수출입 확정치 통계자료(품목별, 국별)

**자료 : 한국섬유산업연합회(KOFOTI), 통계출처 : 한국무역협회(KITA)